

민주 '女 15% 공천' 이중특혜 논란

남성후보들 "경선 때도 가산점 받는데..." 반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키로 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체 지역구 공천자의 15%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공직 후보 추천 당규를 의결했다.

총선 지역구 245곳에 모두 후보를 배출할 경우 37곳 이상에서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2008년 18대 총선 때 8%였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최고위원

회의와 지난달 31일 당 여성정치참여 확대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 추천 시 여성을 15% 이상 공천한다고 각각 결정한 것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성 후보 사이에서 비현실적인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현재 여성이 예비후보로 등록된 곳이 39곳에 불과해 대부분 여성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여성이 추가로 공천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성 15% 공천을 명문화하되 최고위원

회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무위에서는 15% 이상 공천이라는 원안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여성위원장은 "여성 정치참여 확대는 공천개혁의 핵심"이라며 "원래 최고위 결정대로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남성 후보는 "여성은 경선 때도 15%의 가산점을 받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여성이 신청한 지역은 어려운 곳보다는 대부분 해볼 만하거나 유리한 지역이 많아 이중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불만을 표사했다.

사무직 당직자 공천문제도 마찬

을 빚었다. 구(舊) 민주당은 사무직 당직자 남녀 1명씩 2명을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배치하고, 지역구에도 2명 이상을 전략공천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비례대표 선정 인원과 지역구 전략공천 대상자를 각각 1명 이상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자 사무직당직자노동조합이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결국 비례대표는 남녀 1명씩 2명을 배치하고, 지역구 전략공천은 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당무위의 결의를 거쳤다.

당직자노동 관계자는 "과거 규정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4·11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시작한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설치된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접수 첫날 신청자 2명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월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시작한 6일 신청자는 2명에 그쳤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사에서 진행된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류 제출자는 각각 제주 서귀포시와 대구시 달서구에 신청한 정은석 전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실 서

기관 등 2명에 불과했다.

통상 첫날에는 서류준비와 눈치 작전 등으로 접수자가 적지만,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공천신청 접수 첫날 27명이 서류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현저히 적은 셈이다.

당사 2층 강당에 마련된 접수처는 서류 관련 사항을 문의하거나 신청서류를 직접 출력하기 위해 약

10명이 이따금 방문했을 뿐 하루종일 한산했다.

감각시각 11분을 앞두고서야 정전 위원의 대리인인 강모씨가 서류를 들고 접수처를 찾았으나 오후 5시 5분께 김 전 서기관의 대리인도 뒤늦게 방문했다.

공천신청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투우 중단하라 동물보호운동가들이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몸매 향이 꽃혀 명바닥에 쓰러진 소의 모습을 연출하며 투우경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농가 'AI방역' 허점 많다

시설 설치·운용 39% 그쳐

우리나라 일선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한달간 전국 가금류 농장 9천975곳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AI 관련 방역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곳은 3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35%, 출입통제시설을 갖춘 곳은 36%로 조사됐다.

야생조류 차단막이 있는 농장은 41%로 다소 높았다. 규모가 300㎡ 이상 농가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발판 소독조의 경우 전체 농가의 43%가 운용하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일선 방역현장에서 방역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남방철새 도래 시기인 3-5월에 앞서 대대적인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소독 차량을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인근 논·밭을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무인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검역검사본부와 방역본부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 6개반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농가, 도축장 등을 불시 점검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의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방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檢,朴캠프 비선사무실 2곳 용도 조사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6일 2008년 7·3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가 복수의 비선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 돈 봉투 전달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공식 사무실에서 금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무실 임대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시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공식 캠프사무실 외에 2층에 비선 사무실을 운영한 데 이어 같은 건물 10층에도 비공식 사무실을 운영했다.

검찰은 10층 사무실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층 사무실과 비슷한 역할을 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송례문 복원 연말까지 마무리

오는 10일 화재 참사 4년...문화유산 소방점검

국보 1호 송례문이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문루(門樓) 상당 부분이 소실됐다. 2008년 2월10일 밤 8시40분쯤 발생한 화재는 5시간여 만인 이튿날 1시54분 건물을 무너뜨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터진 송례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4년.

그 현장을 지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언제나 위용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안타까워했겠지만,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송례문이 어느새 완공을 향해 막바지 작업을 한창이다.

송례문 복구단장인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은 "6일 현재 송례문 복원은 70%가량 이뤄졌으며, 문루 2층 목구조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예정한 기

간에 복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원공사 완료시점은 오는 12월13일. 복공사가 끝나면 기와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는 내부 단장에 들어가고 이어 외부 단장도 마무리하고는 덧집을 뜯어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대목은 송례문 화재 전시관 건립 문제.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전시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을 각기 얼마씩 부담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중이다. 문화재청은 중앙정부 3, 서울시는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국장은 "다른 지역 유적 전시관 건립이 모두 3대 7인데 유독 송례문만 5대 5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례문 화재 참사일인 오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에 즈음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방재 국제심포지엄과 중요문화재에 대한 합동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을 한다.

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한 발표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10일 오후 창경궁 동명전(보물 818호)에서 문화재청, 종로소방서, 해오름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이 합동 시범 소방훈련을 한다.

또한 각 지자체도 2월 한 달간 해당 지역 내 중요문화재 170여 개소에 대해 소유자, 관할 소방서,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광주 최초 특1급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당신의 비즈니스를 빛내줄 파트너,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과 함께 빛고를 광주가 비즈니스의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Restaurant & Facilities

최고수준의 쾌적함과 세련미를 자랑하는 120개의 객실

- 17F Restaurant & Bar - Paraview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최고급 유로피언 레스토랑 최고층에서 바라보는 야경과 함께 즐기는 한잔의 여유
- 3F Japanese Restaurant - beShow
동양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전통일식당
- 3F, 4F, 5F - Weddinghall & Seminar
- 2F Fitness, SPA & Therapy - 3WELL
- 1F Coffee & Cake - Deli Blossom
따뜻한 커피와 신선한 빵과 케이크



예약문의 : 062) 717 - 7000

www.ramadagwangju.com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1238-3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